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

정현목**

1. 머리말

19세기 서구에서 분과학문으로서의 인류학이 태동한 이래 사회조직이나 의례와 같은 문화적 요소와, 공공 건축물이나 주거 형태 등 공간적 요소가 갖는 상호 관계는 인류학자들의 꾸준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Lawrence & Low 1990). 집합적 인간 행동이 자신들의 사회를 위해 주변 환경을 어떻게 변형·이용하는지 각각 진화론과 기능주의 관점에서 주목했던 모건과 뒤르켐 이후로 많은 인류학자들은 특정 문화의 사회구조와 우주관이 그 문화의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¹⁾과 같은 공간적

* 본고의 완성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리며, 초고 작성 단계에서부터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이경목 학형과 동학 이인혜를 비롯한 대학원 독회 참가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제가 ‘비장소’ 개념에 관심을 갖고 이 논문을 구상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수용자 연구〉 수업을 통해 가르침을 주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재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1) ‘건조환경’은 인간의 건설 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물리적 변화를 폭넓게 지칭하는

요소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역으로 공간적 요소가 해당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연구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공간에 관한 연구가 인류학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미 부르디외가 정식화한 바와 같이, “공간적 구조가 그 집단이 세계를 재현하는 방식을 구성할 뿐 아니라 집단 그 자체를 재현”(Bourdieu 1977: 163)한다는 인식을 인류학자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으로, 프록세믹스(proxemics)²⁾라는 개념을 이용해 문화적으로 형성된 공간 논리에 대해 주목하고자 했던 에드워드 홀은 공간 이용에 대한 사회집단 간의 다른 의미 표현에서 문화 간 갈등의 근원을 찾기도 하였다(Hall 1966).

하지만 초창기 인류학 논의에서 공간적 요소는 인간의 삶을 위한 물리적인 배경으로만 여겨진 경향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인류학 내의 이런 경향은 1980년대 말 이후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공간(space)’과 ‘장소(place)’에 관한 관심이 사회과학계 전반에서 새로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이를테면 Appadurai 1988; Gupta & Ferguson 1992; Feld & Basso 1996). 이는 곧 문화의 공간적 차원을 단순히 배경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 모든 인간의 행동은 공간에 위치하며 공간에서 구성된다는 관념이 새로운 의미로 인류학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을 뜻했다(Low & Lawrence-Zúñiga 2003: 1). 이처럼 인류학자들이 문화의 공간적 차원에 대해 주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 자체를 사회·문화 이론에서 핵심 요소로 인식하게 된 것은 급증하기 시작한 공간에 관한 담론들, 특히 ‘시간’에 버금가는 ‘공간’의 중요성을—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다(Lawrence & Low 1990: 454). 로렌스와 로우에 의하면 건조환경은 가정의 화덕에서부터 거대한 도시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의해 창조된 건축 형태 전반을 가리킨다.

2) 프록세믹스는 독특한 문화의 노작(勞作)으로서의 인간의 공간 사용법을 이론화하고, 상호간의 연관성을 관찰하기 위해 홀이 고안한 용어이다(Hall 1966: 1). 홀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감각세계가 공간을 구조화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상이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문화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물리적 거리와 각종 건축물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시간에 대한 공간의 우위까지도— 강조한 사회이론들의 등장
에 영향 받은 것이었다.

공간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 일련의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은 근대
이후 사회이론들에서 시간이 항상 공간에 대한 우위를 점해왔다고 주장
했다. 일찍이 푸코가 진단한 것처럼, 사회이론 전반에서 “공간은 죽은
것, 고정된 것, 비변증법적인 것, 정지된 것으로 간주된 반면에 시간은
풍요로움, 비옥함, 생생함, 변증법적인 것으로 간주”(Foucault 1980:
70)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에드워드 소자는 근대 사회이론
이 “주로 시간의 해석적 맥락 속에 사회적 존재(social being)와 생성
(becoming)을 위치시킴으로써 형성되는 역학관계를 통해 세상을 이
해”(Soja 1997[1989]: 21)해 왔다면서, 공간성이라는 요소가 비판적인
사회이론에서 시간에 종속되어왔을 뿐 아니라 공간이 갖는 학문적 유용
성이 정치적·실천적 담론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비드 하비는 공간보다 시간을 우위에 두는 이론적 경향은
비판적 사회이론의 목적이 ‘진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이론
은 “항상 사회의 변화와 모던화, 그리고 (기술적·사회적·정치적) 혁
명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에”(Harvey 2005[1989]: 254), 공간과
장소에서의 ‘존재’보다는 시간을 통한 ‘생성’의 과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³⁾

이렇게 공간보다는 시간에 우위를 두는 경향을 보여 온 사회이론들
과 달리, 이들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은 공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면서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지리적인’ 비판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사회과학계 전반에서 가히 ‘공간의 시대’라 할 만한 공간 담론의 급증으
로 이어졌는데, 이처럼 공간이 사회과학계 전반에서 새로 주목받게 된

3) 물론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논자들이 시간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이론에서의 시간과 공간 간의 관계에 관한 전반적 검토로는, 양
자(兩者)에 대해 변증법적 접근을 취해 설명한 소자(Soja 1997[1989]: 21-177)의 논
의를 참조하라.

데에는 드물게 일찍부터 공간의 문제에 천착해 온 이론가인 르페브르(Lefebvre)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Soja 1997[1989] 참조). 공간에 대한 지배가 일상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을 넘어 근본적인 사회적 권력의 원천이라는 르페브르의 사유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The Production of Space*(1991년 영역판 발간, 프랑스어판은 1974년 발간)를 통해 집대성된 바 있다. 이러한 르페브르의 논의와 함께, 그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하비나 카스텔(Castells) 등 다른 공간이론가들의 논의를 통해 1980년대 말 이후 인류학에서 새롭게 불기 시작한 공간과 장소에 관한 관심 증가가 야기되었던 것이다.⁴⁾ 특히 이와 같은 공간에 대한 관심 증가는 인류학에서 공간을 다루어온 전통적인 연구경향—주로 주거 구조나 성소(聖所)의 형태와 역할에 주목했던—을 넘어, 공공공간을 둘러싼 경합이나 도시에서의 공간적 실천 등과 같은 새로운 연구 영역의 개척으로 이어졌다(Low & Lawrence-Zúñiga 2003).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공간에 대한 주목은 도시화와 전지구적인 자본주의의 확산, 전자 미디어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히 진행된 사회·문화적 변동과 맞물리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동은 촌락공동체의 해체와, 교환 및 생산양식의 변화, 공공 공간의 사유화, 전자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생활방식의 변화 등을 유발하며 유의미한 ‘장소’⁵⁾의 상실 혹은 비중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한 지리학과 사회학, 미디어연구, 그리고 인류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과학문들에서도 이와 같은 ‘전통적인

-
- 4) 90년대 이후 공간에 관련된 논의를 전개한 인류학 연구들 가운데, 르페브르로부터의 영향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경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이를테면 Appadurai 1996; Low 1996; Munn 1996).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2절에서 더 다룰 것이다.
- 5) 인문·사회과학에서 ‘장소’라는 개념은 인간의 경험 혹은 생활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한 물리적 지점을 지칭하는 학문적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Casey 1997 참조). 이러한 ‘장소’ 개념과, 그와 유사한 개념 쌍으로서의 ‘공간’ 개념에 대해서는 본고의 2절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다.

장소'의 변화 내지 소멸을 강조한 논의들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는데 (Augé 1995; Castells 2000; Meyrowitz 1985; Relph 2005[1976]), 이들은 '장소상실'이나 '비장소' 등의 개념과 이론을 제안하면서 공간과 장소를 둘러싼 새로운 변화 양상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들 가운데, 특히 인류학자 오제(Augé 1995)의 '비장소'(non-place) 개념에 주목하여 그 특징과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장소'에 관한 오제의 논의는 인류학계에서의 다른 연구들과 달리 이른바 '전통적인' 장소로 여겨지지 않아 온 지점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장소가 아닌 지점들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전통시장이 아닌 대형 쇼핑몰, 촌락공동체가 아닌 고립된 현대식 주거단지, 각종 디지털 매개체가 지배하는 도시의 생활공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장소로 여겨지지 않았던 곳들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범위와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오제는 이러한 지점들을 '비장소'로 명명하여 그 성격에 대해 논했던 것이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오제의 논의와 그를 적용한 연구 성과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류학이 지금까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장소'가 아닌 지점들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2. 장소(place)와 공간(space)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장소(place)'와 '공간(space)'이라는 용어의 개념 정의를 좀 더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뒤에서 더 상세히 논하겠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오제의 '비장소'는 '전통적

인(인간적인) 장소’에 대한 대비, 특히 ‘장소’와 ‘공간’을 대조시켜 분석한 드 세르토(de Certeau 1984)의 논의를 독해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소’, 그리고 그와 유사한 개념 쌍인 ‘공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는 것은 오제가 자신의 개념을 어떠한 학사적 맥락에서 도출해 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

일반적으로 인문·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장소(place)’의 개념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장소 개념을 둘러싼 학문적 담론은 근대성(modernity)과 전지구화(globalization)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Arefi 1999: 179). 이에 따라 많은 경우 사회과학적 의미로서의 장소는 점차 “사람들이 그 형상과 의미를 결정하는, 사회적 실천의 산물”(Berland 2005: 258)로 여겨지게 되었다. 즉, 장소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지리적 위치(location)에 관한 문제를 넘어 인간의 실천(practice)이라는 요소를 포괄하는 범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소’의 문제에 천착한 학자들의 문제의식이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인문지리학자 렐프(Relph) 같은 경우,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Heidegger 1958: 19, Relph 2005[1976]: 25에서 재인용)라는 하이데거의 주장을 인용하여 장소의 성격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심오하고도 복잡한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장소이며, “인간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융합된 것이자, 우리가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의미 깊은 중심”(Relph 2005[1976]: 287)으로 보아야 하는 것 역시 장소인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렐프는 장소 개념이 아주 일관적일 수는 없음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바로 장소 개념이 상세한 정의를 필요로 하는 형식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소박하고 다양한 지리적 경험의 표현을 요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리학자 이-푸 투안(Tuan 1977) 역시 대상 또는 장소에 대한 인간의 경험이 총체적인 생활 속에서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대상과 장소가 구체적인 현실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소를 추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생활 세계(the lived world)가 직접 경험되는 현상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렐프와 투안을 비롯하여 장소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의 관점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장소라는 개념이 인간의 경험 혹은 생활 세계와의 연관선상에서 이해된다면, 그와 유사한 대상을 지칭하는 ‘공간(space)’이라는 개념은 장소와 다소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투안에 따르면, 공간과 장소는 공통의 경험을 나타내는 친숙한 단어들이지만 공간은 장소보다 더 추상적인 성격을 지닌다. 특수화되지 않은(추상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Tuan 1977: 6). 물론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개방성·자유·위협이라는 공간의 특징과, 안전·안정이라는 장소의 특징과의 대비, 그리고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으로서의 공간”과 “정지하는 곳으로서의 장소”라는 대비는 공간과 장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류학자 허쉬(Hirsch 1995) 역시 유사한 관점에서 장소와 공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장소는 특정한 지점의 전면에 드러나는 현실성(actuality)과 관련하여, 그리고 공간은 후면에 놓인 가능성(potentiality)과 관련하여 이해된다. 삶의 영역 내부에서 일상적이고 실제적이며 평범한 행위들이 발생하는 곳이 장소라면, 삶의 영역 외부에 존재하면서 이상화되고 상상된 형태로 존재하는 곳이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특성을 지니는 공간과 장소를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허쉬는 주장한다. 공간과

장소는 서로 간에 연결점이 없는 요소들이라기보다 하나의 관계 내에서 순간순간 변이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이때의 변이, 즉 후면에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던 공간의 영역이 전면의 현실성이라는 장소의 영역으로 변환되는 과정에는 해당 공간을 장소로 변형시키는 사람들의 경험과 문화적 규칙이 작동하며, 경관(landscape)이라는 요소 역시 이러한 공간에서 장소로의 변환—문화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에 의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장소와 공간의 이론화를 시도한 많은 연구자들은 양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소 추상적이며 삶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쥘여있지 않은 공간이, 사람들의 의미 부여와 실천으로 인해 장소로 변형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간과 장소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공간 + 실천 → 장소”)은 공간에 관한 드 세르토(de Certeau 1984)의 논의에서는 그 방향성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 세르토에 따르면 분명한 위치를 지닌 채 안정적인 성격을 지니는 장소와 달리, 공간은 속도와 시간, 방향 등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설명해야 하는 개념이다. 그가 설명하는 장소는 똑같은 지점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고유함의 법칙(the law of the proper)’(de Certeau 1984: 117)이 지배력을 갖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그가 설명하는 공간은 이동 가능한 여러 요소들의 상호교차에 의해 구성되는 지점이며, 나름의 방향성과 상황을 지닌다는 특징을 지닌다. 어떤 물리적 지점에 하나의 위상만이 부여되는 장소와 달리 공간은 다양한 요소들이 교차하며 각각의 상황과 맥락에 의해 변형되는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장소라는 물리적 지점에 사람들의 ‘실천(practice)’이 더해지며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고 결합되는 존재가 바로 공간이라는 것, 다시 말해 공간을 ‘실천된 장소(practiced place)’(de Certeau 1984: 117)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간과 장소에 관한 드 세르토의 논의는 ‘장소의 고

정성'과 '공간의 유동성'이라는 특징에 있어서는 다른 논자들과 궤를 같이 하지만, 공간의 유동성과 인간의 실천 사이의 보다 역동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실천을 통한 장소의 공간으로의 변이("장소 + 실천 → 공간")에 주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실천을 통한 공간의 변이에 관한 논의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간의 생산'에 관한 르페브르(Lefebvre 1991)의 논의이다. 르페브르는 공간이 사회적 산물로 생산됨에 있어,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 '재현된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바라볼 것을 주장했다(Lefebvre 1991: 33-46 참조). 먼저 '공간적 실천'은 사회에서의 생산과 재생산을 위하여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구체적인 흐름과 이동, 상호작용들을 뜻하며, '공간의 재현'은 학자들과 도시계획가들, 기술관료(technocrat)들에 의해 기호나 부호, 지식 등으로 표준화되고 개념화된 공간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재현된 공간'은 공간의 거주자들과 사용자들의 상징적 이용과 상상에 의해 변화되고 전유되는, 공간적 실천을 위한 새로운 의미를 가능케 하는 '직접 체험된' 공간을 지칭한다. 르페브르에 의하면 이 같은 세 가지 차원은 각각 '지각되는(perceived) 것', '인식되는(conceived) 것', 그리고 '체험되는(lived) 것'으로 분류되는데, 이 각각의 차원이 서로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간을 사회적 산물로 생산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간에 관한 이 같은 논의들로부터 영향 받은 인류학자 로우(Low 2000)는 구체성을 담지한 민족지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공간의 사회적 생산(the social production of space)'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the social construction of spa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로우에 따르면, '공간의 사회적 생산'은 특정한 공간이 역사적, 정치·경제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작용하는 사회적·경제적·이념적·기술적 요소들 간의 결합에 대한 분석을 위한 개념이며, '공간의 사회적 구성'은

일단 형성된 공간을 두고 그 이용자들이 행하는 의미 전유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다(Low 2000: 127-128). 로우는 이러한 개념 쌍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특정한 공간의 외양을 결정하고 그에 대해 ‘타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세력들 간의 복합적인 경합 과정과 함께, 공간 설계자들의 의도와 해당 공간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 사이의 불일치를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르페브르와 드 세르토, 로우 등의 논의는 공간을 둘러싼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경합을 통해 공간이 사회적 생산물로서 구성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반수)강제적인 규율이나 지식을 내세워 공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층의 전략에 맞서 피지배층은 실천을 통한 공간의 전유로 대응한다.⁶⁾ 이러한 경합 과정을 통해 공간은 다양한 사회관계와 그 안에서의 복합적인 실천이 서로 얽히며 배치된 사회적 산물로 탄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공간’ 개념에 대해 이 절에서 살펴본 ‘장소’ 개념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소와 공간에 관한 논의에서 양자는 모두 어떠한 물리적 지점이나 위치에 인간의 삶과 실천 행위가 누적되며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곳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다만, 정적이고 안정적이면서 지역성에 기초하여 생활세계에 부착되는 대상으로 장소를 이해하는 논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면서 그 자체의 유동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이 공간에 관한 논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다른 학자들과 다소 다른 관점에서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했던 드 세르토의 논의에서 두드러지는데, 뒤이어 살펴볼 오제의 ‘비장소’

6) 특히 드 세르토에게 있어 이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 ‘보행자 발화(pedestrian enunciation)’이다. 관리자들과 계획가들이 그들의 의도에 맞게 짜맞추어놓은 도시에서, 보행자들은 걷기라는 행위를 통해 방향과 속도, 시간을 변주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을 나름의 방식으로 전유한다. 드 세르토는 이 같은 전유 행위를 틀지어진 언어의 문법 속에서 다양한 발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해내는 것, 혹은 이미 완성된 텍스트에서 필요한 조각들을 가져와 전용하는 행위와 비교하며 ‘보행자 발화’라 지칭한다(de Certeau 1984: 97-99 참조).

는 바로 공간에 대한 이 같은 논의—유동적인, ‘실천된 장소’로서의 공간—에서 출발한다.

3. ‘비장소’의 공간들

프랑스의 인류학자 오제(Augé 1995)는 특정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관계의 부재, 역사성의 부재, 고유한 정체성의 부재 등의 특징을 지니는 공항이나 대형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같은 장소들을 ‘인간적인 장소’가 될 수 없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비장소(non-place)’라 부를 것을 제안했다. 오제에 따르면 과거와 분리되어 항상 현재만이 존재하는 이들 ‘비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비매개적인 거래 과정에서 무언의 제스처만으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때 그들은 “개인과 공적 기구 사이의 비인간적 매개물—오직 표지나 화면으로 이루어진—에 개별적으로 결합되는 고립을 경험”(Augé 1995: 117)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비장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오제가 처음은 아니다. 오제의 제안보다 30년 가까이 앞서, 웨버(Webber 1964)는 2차대전 이후 서구 도시들에서 관찰되는 양상을 바탕으로 ‘비장소적인 도시 영역(the nonplace urban realm)’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웨버는 “도시와 도시 생활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상호작용”(Webber 1964: 147)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시 생활의 바탕인 장소 개념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활동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인 도시 영역(urban realm)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 패턴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는 곧 그들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장소에 대한 귀속의식의 약화를 야기했다는 것이다.⁷⁾

하지만 웨버가 제안한 ‘비장소적인 도시 영역’이라는 개념은 도시 설계나 도시 디자인 분야에 바탕을 둔, 다소 좁은 함의를 가진 개념이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1990년대에 들어 오제는 자신이 슈퍼모더니티(supermodernity)라 부른 조건들이 발현되는 공간들을 ‘비장소’로 지칭하면서 새로운 분석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 오제는 앞서 본고의 2절에서 살펴본 드 세르토(de Certeau 1984)의 장소와 공간에 대한 개념 분석에 근거하되, 드 세르토가 사용하는 장소에 관한 용법과는 다소 다른 맥락에서 장소 개념을 논한다. 무엇보다 오제가 정의하고자 하는 장소는 드 세르토의 분석에서 공간과 대비된 장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오제는 “인간의 실천적 요소와 결합되기 이전 지점”으로서의 장소(드 세르토의 ‘장소’)와 “실천된 장소”로서의 공간(드 세르토의 ‘공간’) 사이의 이항 대립 대신, 드 세르토가 ‘공간’으로 규정된 지점에 주목하여 그를 다시 ‘인간적(인류학적) 장소(anthropological place)’와 ‘비장소(non-place)’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어떠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공간에는 사람들의 실천적 행위가 풍부하게 발생하고 개개인의 경험에 의해 매개되는 ‘인간적 장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텍스트나 이미지에 의한 매개가 중심이 되는 ‘비장소’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제가 제시하는 비장소의 특징으로 먼저, “텍스트에 의한 공간에의 침투”(Augé 1995: 99)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를 테면 오제의 논의에서 대표적인 비장소의 예로 제시된 고속도로에서의 경우, 운전자들은 추상적인 개체가 제공하는 단어 혹은 이미지만을 제

7) 웨버의 제안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의 개념을 다시 점검한 피터 홀(Hall 1996)은 웨버가 제안한대로 현대의 대도시들이 신경제(new economy)의 출현에 의해 점차 탈중심화되고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의 선견지명을 평가하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 간의 면대면 관계가 중요하며 전통적인 도시 결절(urban node)의 역할 역시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소’는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방게 되고 오직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도로가 지나는 지역의 역사나 문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소성, 그리고 해당 장소성이 배어 있는 경관 자체와 직접적으로 조우하게 되는 일반 국도와 달리, 고속도로에서 경관은 운전자들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해당 장소를 단지 스쳐지나가는 곳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국제선 공항 역시도 이처럼 인간에 의한 직접 경험 없이 단어나 이미지에 의한 매개에 의해 경험되는 비장소의 공간이다. 또한 대형 할인점과 같은 비장소에서는 고객과 점원 사이에 지극히 사무적인 대화 외에는 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고 그 값을 지불하는 데에는 텍스트와 이미지, 신용카드를 읽는 카드리더기만이 동원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작용은 비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개인화(individualize)하고 해당 공간에서 요구하는 ‘승객’이나 ‘소비자’, ‘운전자’와 같이, 익명의 다수에 의해 공유되는 단일한 정체성만을 생성해 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장소의 특징은 비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공간과 일시적인 ‘계약 관계’에 놓이게 한다. 오제에 따르면, 공항이나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입장을 위한 티켓, 상품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대형 할인점의 운반용 카트 등은 비장소를 상징하는 명시적인 기호들로, 비장소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 같은 기호와 함께 비장소 특유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비장소의 정체성을 부여받는 사람들은 또한 한편으로 항상 신분확인을 통해 그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는다(Augé 1995: 102).⁸⁾ 비장소의 이용자들은 비장소의 공간과 계약 관계에 놓이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이 비장소를 이용하기에 적합한 정체성으로 새로이 규정된다는 것, 즉 비장소에서는 그 바깥의

8) 이와 관련하여 오제의 *Non-Place* 영문단행본 번역자인 하우(Howe)는 ‘비장소’를 뜻하는 *non-lieu*라는 단어가 프랑스어의 다른 용법으로는 ‘결백’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점을 역주를 통해 부연한다(Augé 1995: 102). 오제가 이 같은 프랑스어의 이중적 용법을 이용하여 그가 제안하는 비장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정체성으로 작용하는 통상의 결정인자들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정체성—‘고객’이나 ‘승객’이라는 정체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을 위한 자격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비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일시적인 기존의 정체성 상실로 인한 ‘수동적’ 즐거움과, 비장소에서의 새로운 역할 수행에 기인하는 더 ‘능동적인’ 즐거움을 만끽하게 된다. 하지만 오제는 이로 인해 비장소의 이용자들은 고독과 함께, 타인과 구분되지 않는 유사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자아 이미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처럼 ‘자유로운’ 익명성을 누리는 비장소의 이용자들은 과거로부터 단절된 채 코드나 이미지, 텍스트 등 추상적인 매개물만을 통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오제는 비장소의 또 다른 특징으로, 과거는 없고 오직 지금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현재성(actuality)’의 지배를 제시한다. 단지 거쳐 지나가는 곳일 뿐인 비장소는 물리적인 공간을 갖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단위에 의해 측정되는 특성을 지닌다. 마치 공간이 시간에 의해 포획된 것처럼, 지나간 수십 시간의 뉴스 외에는 어떠한 역사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비장소에서는 ‘현재’, 즉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이 계속 이어질 뿐이다. 이러한 현재성의 지배 아래 비장소의 이용자들은 친숙하면서도 유명한 보편성을 지니는 우주관이 만들어내는 (시각적·청각적) 이미지 속에 둘러싸인다(Augé 1995: 106). 이는 두 가지 결과를 야기하는데, 우선 이러한 이미지들은 비장소의 공간법칙으로 설명되는 하나의 체계(system)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바로 그 새로운 우주관에 어울리는 인지 효과를 생성해 낸다. 이로 인해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장소성과 무관하게 분리된 비장소의 익명성을 통해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오제의 비장소 개념은 1970년대에 인문지리학자 렐프(Relph 2005[1976])가 제안한 ‘무장소성(placelessness)’ 혹은 ‘장소

상실' 개념에서도 예견된 바 있다. 렐프는 산업화로 인해 점차 획일적으로 변해가는 경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집단이나 공동체의 전통적인 장소 정체성과 분리된 '장소에 대해 진정하지 못한 태도'가 등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장소에 대해 진정하지 못한 태도는 "효율 추구를 목적으로 계획된 객관주의적 기술(技術)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온 것으로"(Relph 2005[1976]: 183), 대중매체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전파된다. 이 같은 태도의 만연에 의해 생겨나는 '무장소성'은 "의미 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한 환경과, 장소가 가진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잠재적인 태도 양자를 함께 기술하는 말"(Relph 2005[1976]: 290)로서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경험적 질서를 개념적 질서로 바꾸어 버리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장소에 대한 진정성 상실에 주목하여 '무장소성'을 주창한 렐프의 논의와 비장소에 관한 오제의 논의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장소의 이용자들은 일시적으로 비장소의 공간과 계약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는 개인이 기존에 소속된 집단에서 공유하고 있던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형성되는 계약에 기반을 두게 된다. 즉 비장소에서의 상호작용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적 실천과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일 뿐, 비장소의 도처에 위치한 이미지나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등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오제의 비장소는 렐프가 논한 바와 같은 '장소상실' 혹은 '무장소성'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비장소는 '장소가 없는 곳'이 아니라, '전통적인(인간적인) 장소가 아닌 곳'이라는 것이다.

4. '비장소' 개념의 적용과 비판

이와 같은 비장소에 관한 논의에서 오제는 비장소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다섯 가지 예를 '전통적인' 장소와 함께 대조하여 제시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주 지역과 스쳐지나갈 뿐인 환승 구역,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이 있는 교차로와 다른 이의 경로와 중첩되지 않는 인터체인지, 여유로이 산보하는 여행자와 목적지에 의해 정의되는 승객, 사람들이 공유하고 기념하는 기념물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지 않는 현대식 주택단지, 그리고 전통적인 언어와 대비되는 코드·이미지에 의한 커뮤니티레이션이 그것이다(Augé 1995: 107).⁹⁾ 이 외에도 이 같은 비장소의 속성들이 잘 드러나는 지점으로 대형 쇼핑몰과 테마 파크, 국제선 공항과 같은 곳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익명성이 지배하는 공간인 쇼핑몰은 동시에 어디에서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복제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복제성 때문에 쇼핑몰은 “주위 환경과 구별되며, 유동적이고 하이퍼매개된 경험을 제공”(Bolter & Grusin 2006[1999]: 214)한다. 테마파크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테마파크는 정해진 영업시간 동안에만 공적 장소로 기능하며 이 시간 동안에만 사람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동질적인 익명성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공간과의 일시적인 제약 관계에 의해 관계를 맺는 비장소의 양상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들 쇼핑몰과 테마파크라는 것이다.

또한 국제선 공항 역시 대표적인 비장소의 예라 할 수 있다. 오제의 비장소 개념을 적용하여 시드니 국제공항을 분석한 로이드(Lloyd 2003)의 논의는 비장소로서의 공항이 갖는 특징들을 잘 보여준다. 게임라운지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대형 광고판, 대형 TV 등 공항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들은 방문자들에게 재미를 제공하며 기분에 따

9) 각각의 경우에서 전자가 '전통적인' 장소를, 후자가 비장소를 예시한다.

른 자유로운 쇼핑 활동을 위한 장소로 기능한다. 이러한 환경 아래 공항을 찾는 글로벌 여행자들은 ‘글로벌 소비자’로 치환되며, 각종 사치품과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추상화된 글로벌 스케일의 공간에 놓이게 된다. 이때 비장소로서의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분 좋은 기다림’을 제공하는 새로운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로이드는 한편으로 이와 같은 비장소가 특정한 사람들이나 커뮤니티로 하여금 의도치 않게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을 지적한다(Lloyd 2003: 98). ‘실제’ 장소가 부여하는 한계로 인해 고정되어 있던 정체성과 지위가 비장소에서 경험 가능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규정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전도 과정을 터너(V. Turner)가 제안한 ‘리미널리티(liminality)’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전통적인 장소 개념이 지배하는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벗어난 비장소에서 사람들은 정상적인 구조가 역전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비장소의 경험을 종교 의례에서의 리미널리티에 비유할 때, 비장소의 이용자들이 수행하는 의례는 다름 아닌 ‘소비의 의례’일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오제의 비장소 개념을 받아들여 적용하되, 이 개념의 확장성에 주목한 연구자들도 등장했다. 이를테면 샤르마(Sharma 2009)는 정치철학자 아감벤(Agamben)의 ‘벌거벗은 생명(bare life)’ 개념에서 출발하여 테마 파크나 쇼핑몰처럼 쉽게 비장소로 여겨져 온 지점들 뿐 아니라 난민 캠프와 같이 삶에 대한 정치적 규제가 강력히 진행되는 곳 또한 비장소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비장소—테마파크 등과 같은—와 난민 캠프는 “모두 그 장소들이 예외적으로 위치된다는 맥락에서 ‘치외법권’을 가지며, 또한 의미의 일회성, 유동적인 정체성, 일시성의 영속성(the permanency of transience) 등과 같은 공통점”(Sharma 2009: 130)을 갖고 있다. 이때 비장소가 이러한 공통적인 속성들을 기술의 가속화와 스펙터클한 자본(Debord 1977)으로 특징

지어지는 비정치적인(apolitical) 조건에 의해 갖게 된다면, 난민 캠프는 생체정치적(biopolitical)¹⁰⁾ 조작에 근거하여 캠프로부터 그 외부로 확장되는 고도로 정치화된 조건에 의해 이들을 갖게 된다. 이들 두 장소는 얼핏 보기에 서로 배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자본 권력이 생체권력에 의존하게 되면서 유사한 논리에 의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 샤르마의 주장이다. 나아가 그는 비장소를 난민 캠프의 논리와 스펙터클의 논리가 충돌하는, 매우 특수한 장소의 정치가 작동하는 곳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상품화가 지배하는 스펙터클한 공간과 삶에 대한 생체정치적인 규제가 함께 작동하는 공간이 바로 비장소라는 것이다 (Sharma 2009: 131).

이와 같은 샤르마의 주장에는 추상화와 가속화, 이동성의 증대 속에서 모든 정치적 가치들이 사라진 곳으로 비장소를 인식할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오제의 주장대로 비장소가 “오늘날 세계에서 점차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Augé 1995: 110)에서 ‘정치적’ 혹은 ‘사회적’ 요소들은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식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그 수가 결코 적지 않은—의 노동이 비장소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맥락의 중요성을 놓친 결과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 샤르마의 비판 지점이다. 더 나아가 그는 난민 캠프에서 작동하는 배제의 논리와 ‘예외 상태(the state of exception)’(Agamben 2008[1995])¹¹⁾가 캠프 바깥으로 확산되

10) 주지하다시피, ‘생체정치(biopolitics)’와 ‘생체권력(biopower)’은 근대 규율사회의 등장과 그로 인한 근대적 주체의 형성을 분석하며 푸코가 제시한 핵심적 개념이다. 푸코에게 있어 권력의 작용은 개개인에 대한 규율 권력의 침투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적 훈육 사회에 적합한 주체성의 생산으로 이해된다. 이때의 권력은 “하나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권력지배의 효과는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열, 조작, 전술, 기술, 작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Foucault 2003[1975]: 57)이다. 더 나아가 생체권력은 인간의 삶(생활) 자체를 권력의 대상으로 삼고, 삶의 가장 내밀한 곳—이를테면 성(sexuality)과 같은—까지 침투하여 삶 자체의 생산과 재생산에 관여하기에 이른다(Foucault 2004[1976]).

면서 오제가 제시한 ‘전형적인’ 비장소들에서도 역시 그와 유사한 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물론 화려한 쇼핑몰과 테마 파크와 같은 비장소들에서는 난민 캠프에서와 같은 배제의 논리뿐 아니라 자본의 힘에 기인하는 스펙터클의 논리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화려한 스펙터클의 이면에 난민 캠프의 폭력성과 배제성이라는 논리 역시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데이비슨(Davidson 2003)은 공항과 호텔이라는 ‘비장소’ 또한 배제의 논리에 근거하여 작동할 수 있음을 살피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과 비장소 — 구체적으로 데이비슨의 논의에서는 비장소를 운영하는 국가기구와 자본 —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의 존재와 그 속에서 경험하는 익명성은 오제가 주장한 슈퍼모더니티의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최근 국가 간 여행의 규모가 커지면서 여행과 관련한 공간 — 세계 각지에 위치한 공항 라운지나 호텔과 같은 — 의 동질성 증대는 여행이라는 경험과 비장소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도록 하였다(Davidson 2003: 13). 그런데 이로 인해 공항이나 호텔과 같은 공간들은 주로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되었고, 동시에 이들의 특정한 관심사가 재현되는 공간이 되었다. 결국 이들 공간에서 형성되는 물리적 지점들은 경계 유지와 국가 내부

11) 아감벤(Agamben 2008[1995])은 인간 생명을 ‘단순한 생명(zoe)’과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생명(bios)’으로 구분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가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으로 명명한 생체정치적 신체의 생산과 주권 권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 연구를 통해 아감벤이 도출해 낸 개념인 ‘벌거벗은 생명’은 “살해는 가능하되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는 생명, 즉 호모 사케르(Homo Sacer)의 생명”(Agamben 2008[1995]: 45)으로서, 이러한 벌거벗은 생명 — 법의 바깥에 놓인 채 누구로부터도 공격받을 수 있는 — 을 창출해내는 것이 주권의 근원적인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때 주권은 ‘예외 상태’를 통해 평상시 작동하는 법을 정지시키며 그럼으로써 벌거벗은 생명을 자신의 권력 안으로 포섭시키는데, 아감벤은 현대 사회에서 ‘예외 상태’의 확산 — 테러 위협의 증대로 인한 군사력, 경찰력의 남용과 같은 — 으로 인해 벌거벗은 생명의 논리가 수용소와 같은 특수한 공간을 넘어 현대 정치에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의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국가 권력의 주된 통제 영역이 되었고, 이들 비장소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배제 행위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비슨은 특히 국가 간을 오가는 여행자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여행자들은 오제가 논한 것처럼 공항이나 호텔에서 경험하는 일시적인 정체성 상실로 인한 수동적 즐거움을 만끽하는 ‘공인된 여행자’들과 함께, 똑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성의 고통스러운 소멸에 직면한 ‘공인되지 못한 여행자’들로 나누어진다(Davidson 2003: 14). 후자에 해당하는 이들 — 비장소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부유한 관광객이 아닌 가난한 이민자들 — 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민국가의 주권 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며, 이들은 다른 의미에서의 ‘결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데이비슨은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이동의 규제와 이민 관리가 비장소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본다. 앞서 살펴본 사르마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잠재적인 정치적 행위가 발생 가능한 물리적 지점으로서 비장소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오제의 비장소 개념을 영국의 고속도로 연구에 적용한 메리먼(Merriman 2004: 150)의 지적대로, 오제의 논의는 그가 제안한 비장소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새로움과 차이를 다소 과장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전신이나 전화가 처음 등장했던 100년 전의 또 다른 세기말에도 역시 오제가 분석한 바와 같은 비장소의 특징이 지금과 유사한 양상으로 사람들에게 수용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윌켄(Wilken 2008)의 설명대로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한 비인간적 매개 현상에 주목한 오제의 논의와 달리, 실제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창출해 내면서 또 다른 장소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창조해내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비장소에 관한 오제의 논의에서 사회적 관계의 이질성이나 물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메리먼은 오제의 논의에 대한 라투르(Latour)의 비판을 인용하면서, 오제가 열대지방 — 오제가 인류학자로서 첫 경력을 쌓기 시작한 코트디부아르 — 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에서 취한 방법론과 달리 현상 내부의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보지 않고 피상적인 현상 분석에만 그치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Merriman 2004: 151). 오제에 관한 라투르의 비판은 그가 주창하는 ‘대칭적 인류학’(Latour 2009[1993])에 부합하지 않는 예시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으로, 이를테면 라투르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원주민들의 주술을 통해 그 사회 전체를 이해하고자 한 오제가 정작 자신의 사회인 프랑스에서의 철도시스템을 연구하면서도 그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Latour 2009 [1993]: 254-255). 라투르가 주창하고자 하는 ‘대칭성’ 안에서 열대지방 사람들을 연구했던 인류학자라면 충분히 기술자와 운전자, 임원과 승객, 국가권력에 이르는 복합적인 네트워크 자체를 연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제는 ‘슈퍼모더니티’와 ‘비장소’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분석에만 머무르고 말았다는 것이다.¹²⁾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제의 비장소 개념이 갖는 함의를 간과해 버릴 수는 없다. 특히 다양한 전자미디어가 인간 생활의 많은 영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장소 개념은 현대사회의 연구에 있어 주목할 만한 관점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장소에

12) 이러한 비판은 라투르가 인간 행위자와 함께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수많은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ctors)’를 포괄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의 주장자 중 하나라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대사회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의 지향점에 대한 라투르의 논의는 흥미로운 점이 있지만, 그의 이론에 관한 부가적인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더 이상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보다 상세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소개는 라투르의 저작(Latour 2007)을, 그에 대한 최근 국내 인류학계에서의 접근방향 모색으로는 오명석의 논의(2012: 202-205)를 참고하라.

관한 인식만으로는 포착해 내기 어려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인간의 삶과 주변 공간이 매개되는 공간들 — 스마트폰 등 최첨단 휴대기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몰입한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과 같은 — 이 점차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대 미디어사회의 초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광장이나 상업지구, 가로(街路) 등과 같이 나름의 고유한 역사와 정체성을 보유한 곳으로 여겨지던 기존의 공공 공간들 역시 최근에 와서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결국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정 부분 오제의 비장소 개념이 적용 가능한 ‘새로운 공간’의 등장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비장소’의 상대성과 한국사회에의 적용

지금까지 살펴본 오제의 논의는 ‘전통적인 장소’ — 오제의 표현대로라면 ‘인간적인 장소’ — 와는 무언가 다른, ‘새로운 장소’ — 역시 오제의 표현으로는 ‘비장소’ — 에서의 공간논리에 대해, 단순히 인간미가 풍기는 전통적인 장소의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무엇보다 그는 ‘장소상실(placelessness)’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던 렐프(Relph 2005[1976])나 ‘장소감각 상실(no sense of place)’¹³⁾을 제시했던 메이로비츠(Meyrowitz 1985)와 같은 일련의 연구자들과는 달리, 20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새로운 공간들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장소의 ‘상실’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제에 따르면 비장소에서의 상호작용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적 실천과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일

13) 미디어학자 메이로비츠(Meyrowitz 1985)는 전자미디어와 장소감각(sense of place)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물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전자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상호작용이 인간의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를 야기하여 장소감각을 약화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뿐, 나름의 공간논리에 따라 작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장소를 구성하는 이미지나 텍스트, 각종 코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에 따른 인간과 공간 간의 상호작용은 사람들이 공간과 맺는 관계와 그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새로이 조망해 낼 필요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비장소에 관한 오제의 논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앞의 4절에서 살펴본 비판들 외에도, 그의 논의에서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인간적이지 않은 요소들에 의한 인간과 장소 사이의 매개’가 다른 ‘전통적인’ 장소들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매개과정에 수반되는 특정 공간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의 등장 역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전통사회에서의 종교 사원과 같은 신성한 공간의 경우, 해당 공간에서 인간과 장소,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것 역시 직접적으로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각종 이미지와 상징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공간에 들어선 사람들은 적어도 그 공간에서만큼은 일시적으로 바깥세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¹⁴⁾ 이처럼 오제가 비장소의 대표적 특징으로 꼽은 성질들은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몇몇 특수한 공간들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푸코가 모든 인간집단에 존재해 온 이질적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Foucault 1986)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미 지적한 바이기도 하다.

아마도 완전히 ‘비장소’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간도 성립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반대로 완전히 ‘인간적인 장소’ 역시 존재할 수 없다고

14) 다수의 민족지 사례들이 보여주듯이(Malinowski 1935: 23-26; Levi-Strauss 1987 [1963]: 132-133; Fernandez 1984; Munn 1996 참조), 전통사회에서의 성소(聖所)는 일반적인 장소와는 다른 형태의 공간논리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성소에서의 개인은 현실과 유리된 채 의례참가자로서의 동질적인 정체성만을 부여받게 된다. 성소는 “성과 속이라는 두 세계를 구별하고 분리하는 한계이자 경계선이고 국경인 동시에 그러한 세계들이 서로 만나고 속된 세계에서 성스러운 세계로 이행할 수 있는 역설적인 장소”(Eliade 1998[1957]: 58)로서 현실과 확연히 구별되는 공간이다.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제가 제안한 20세기 후반의 비장소들에서의 공간논리를 과장된 것으로 여길 수만은 없다. 비장소에서 작동하는 비인간적 요소들에 의한 인간과 공간 사이의 매개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 장소들에서의 상호작용들을 배열했을 때 비장소에서의 상호작용이 그 스펙트럼의 한 극단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며, 바로 그 극단의 경험이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고독’을 제공하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인간적인(전통적인) 장소’와 ‘비장소’의 인식에 있어 발생가능한 상대성의 문제이다. 공간을 활용하는 개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완전히 비장소로 작동하는 공간은 있을 수 없다.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들어서는 인간이 지닌 바깥세상에서의 ‘신분’과 ‘정체성’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비장소’로 여겨질 수 있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장소’로 작동할 수도 있으며, 그 역 또한 성립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맥락에 따라 특정한 장소가 비장소화 되거나 혹은 특정한 비장소가 장소화될 수 있으며, 장소와 비장소의 구분 역시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제의 논의가 갖는 장점은 비장소의 등장을 단순한 의미의 부재가 아닌 다른 의미를 지닌 공간논리의 침투로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인데, 이 같은 ‘비장소의 상대성’과 모호성은 거기서 더 나아가 복수의 공간논리들이 경합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는 곳이 비장소라는 새로운 공간임을 상기시켜준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비장소에서 그 복수의 공간논리들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거기서 포착되는 개별 인간 혹은 그가 속한 집단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상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한국사회를 조망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전통적인 장소로 규정될 수 없는 공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도시 현실에서 사회적 교류를 위한 장으로

작동하는 ‘장소’는 점차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도시 내 지역공동체 상실에 관한 논의에서 황익주(2005)가 지적하고 있듯이, 과거 1960~70년대에 사회적 교류의 공간 역할을 맡았던 ‘골목길 공동체’가 사라진 이후 현대 한국의 도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세계에서 친숙하고 유의미한 ‘장소’로서 인식할 만한 공간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와 유사한 기능을 위해 국가와 자본이 제공한 대규모의 테마 광장이나 공원들 역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질적으로 익명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러한 공간들은 유의미한 ‘장소’의 형성에는 그다지 기여를 하지 못했고, 그뿐 아니라 다양한 테마 광장이나 공원들을 찾아다니며 즐길 처지가 되지 못하는 계층들을 소외시켜 버리는 맹점 또한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황익주 2005: 75). 오히려 이러한 곳들은 본고에서 살펴본 오제의 ‘비장소’에 해당하는, 소수에게만 허용된 배제의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비장소’의 등장을 잘 드러내는 지점들로 도시 재구조화와 함께 새로 등장한 다양한 상업공간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나 이마트·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할인점, 그리고 서울의 타임스퀘어·가든파이브 등의 초대형 복합쇼핑몰들은 물리적 공간배치와 이용 패턴에 있어 오제가 논한 비장소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물론 이들 새로운 소비 공간에 대한 논의에서, ‘전통적인 장소’에의 향수를 바탕으로 한 ‘복원 논리’¹⁵⁾라든가, 혹은 이들 공간에서도 ‘사람들의 실천’이 발생하므로

15)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이나 영세 상점에 대해 품고 있는 이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과거의 소비 공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발생하며 나름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장소’로 여겨져 온 성격이 강했다. 최근 한국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재래시장 살리기 문제에도 일정 부분 이러한 ‘장소’의 복원 논리와 연관된 정서가 개입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대형 마트로 대표되는 거대 자본의 규제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정치·사회적 입장이 개입되어 있기에, 이 문제를 완전히 장소 복원 논리로만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앞서 본고의 4절에서 살펴봤듯이 ‘장소’와 대비되는 비장소의 범람이 기본적으로 거대 자본의 영향력 확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거대 자본의 규제에 찬성하

전형적인 비장소로만은 볼 수 없다는 식의 설명 방식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이 같은 접근들은 물리적 공간을 인간의 실천이 강조되는 전통적인 장소의 ‘상실’ 여부로 구분하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 내지 소멸과 관련한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라, 장소의 변화로 인해 형성되는 새로운 공간논리가 지닌 복합성에 대한 분석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비장소 관련 논의의 비판적 적용은 이러한 분석에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 학계에서도 소비공간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간, 도시 카페, 이주노동자들의 초국적 공간,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등 한국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이 확대되는 다양한 공간들의 분석에 있어 비장소 개념을 적용한 시도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양차미 2012; 유일상 2011; 이길호 2011; 이희상 2009).

한편 이와 함께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 내지 소멸이 주거공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최근 대형 고급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의 확충과 함께 단지 내 공간을 녹지로 가득 찬 공원과 같은 형태로 꾸미는 조경을 통해 입주민들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장소’는 전통적인 장소 개념과는 달리, 지역적·역사적 특수성을 최소화하는 ‘흐름의 공간’(Castells 2000)이 지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장소’이다. 첨단 전자감시 장치와 유비쿼터스 기술로 무장한 이들 새로운 ‘장소’는 많은 측면에서 비장소의 특성을 지니는 한편, 해당 공간의 출입자격 소유 여부에 따라 ‘장소’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비장소의 상대성’을 잘 드러내는 사례가 된다. 한편, 반면에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주거지역을 보면 가난한 지역일수록 주민 간의 상호작용이

는 정서가 곧 비장소의 규제를 통한 장소의 복원이라는 정서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준다.

활발할 것이라는 과거의 이상적 통념과는 달리, 물리적·제도적 여건의 부재로 인해 도무지 ‘장소에(topophilia)’(Bachelard 1969)를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요컨대, 현대 한국의 도시환경에서 상위계층의 생활공간은 새로운 상호작용과 의미를 창출하는 다른 형태의 ‘장소’ — 한편으로 ‘비장소’의 특성을 여전히 지닌 — 로 재탄생하고 있지만, 하위계층의 생활공간은 ‘장소의 논리’가 파괴된 극단적인 형태의 비장소로 변모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하위계층의 생활공간에 관한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일반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리라 볼 수만은 없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통영의 동피랑과 서울의 개미마을 등의 사례처럼 주민들과 외부에서 온 미술학도들에 의해 골목마다 벽화가 그려지면서 마을의 활기가 되살아난 경우도 있고,¹⁶⁾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서울이나 수원시 등에서 추진 중인 행정 차원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하위계층의 주거지를 물리적·사회적 측면에서 개선하려는 시도들 역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의 여러 도시 공간은 이처럼 다양한 변화 양상들이 병존하면서 경합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며, 각각의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후속 연구의 몫이 될 것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살펴본 비장소와 관련한 논의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러한 작금의 여러 현상들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의 초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전통적인 장소의 소멸에 대해 한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논리에 대해 분석하여 사람들이 공간과 맺는 관계와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조망해내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공간논리가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전과 다른 형태를 지닌 공

16) “행복한 마을에는 벽화가 있다”, 『오마이뉴스』 2009년 10월 20일자 기사 참조.

간들에서의 의미부여와 상호작용은 이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층위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문접수일: 2012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 2012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20일

참고문헌

양차미

2012 “비장소로서의 도시 카페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오명석

2012 “지식의 통섭(通涉)과 인류학”, 『비교문화연구』 18(2): 175-222.

유일상

2011 “초국적 공간의 구성과 이주 전략: 국내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사례”,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이길호

2011 “사이버스페이스의 인류학: 존재, 행위, 장소”, 『인류학의 위치를 묻다』, 2011 한국문화인류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자료집, pp.233-247.

이희상

2009 “(비-)장소로서 도시 기계 공간: 대구 지하철 공간의 기호적 재현에 대한 해석”, 『대한지리학회지』 44(3): 301-322.

황익주

2005 “골목길과 광장 및 공원: 도시에서의 ‘우리 동네’ 형성에 관한 인류학적 에세이”, 『건축』 49(1): 69-76.

Agamben, Giorgio

2008[1995] *Homo Sacer: Il Potere Sovrano e la Nuda Vita*, 박진우

윽김,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Appadurai, Arjun

1988 “Introduction: Place and Voice in Anthropological Theory,”
Cultural Anthropology 3(1): 16-20.

1996 “The Production of Locality,” in A. Appadurai, *Modernity at Larg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178-200.

Arefi, Mahyar

1999 “Non-place and Placelessness as Narratives of Loss: Rethinking the Notion of Place,” *Journal of Urban Design* 4(2): 179-193.

Augé, Marc

1995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trans. by J. Howe, London & New York: Verso.

Bachelard, Gaston

1969 *The Poetics of Space*, Boston: Beacon Press.

Berland, Jody

2005 “Place,” in T. Bennett, L. Grossberg, and M. Morris, eds.,
New Keywords: A Revised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Blackwell, pp.256-258.

Bolter, J. David & Richard Grusin

2006[1999]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이재현 윽김,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Bourdieu, Pierre

1977 *Outline of Theory of Practice*, trans. by R. N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sey, Edward

1997 *The Fate of Place: A Philosophical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astells, Manuel

200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lden: Blackwell.

Davidson, Robert A.

2003 “Spaces of Immigration “Prevention”: Interdiction and the Nonplace,” *Diacritics* 33(3-4): 3-18.

Debord, Guy

1977 *Society of the Spectacle*, Detroit: Black & Red.

De Certeau, Michel

1984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liade, Mircea

1998[1957] *Das Heilige und das Profane*, 이은봉 옮김, 『성과 속』, 서울: 한길사.

Feld, Steven & Keith H. Basso (eds.)

1996 *Senses of Place*, Santa F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Fernandez, James

1984 “Emergence and Convergence in some African Sacred Places,” in M. Richardson, ed., *Place: Experience and Symbol*, L.A.: Geoscience Publications, pp. 31-42.

Foucault, Michel

1980 “Questions on Geography,” in Colin Gordon, ed.,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New York: Pantheon Books, pp. 63-77.

1986 “Of Other Spaces,” *Diacritics* 16(1): 22-27.

2003[1975]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오성근 옮김,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서울: 나남출판.

2004[1976] *Histoire de la sexualite: Tome 1 La volonte de savoir*,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 서울: 나남출판.

Gupta, Akhil & James Ferguson

1992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Cultural Anthropology* 7(1): 6-23.

Hall, Edward T.

1966 *The Hidden Dimension*, Garden City: Doubleday.

Hall, Peter

1996 “Revisiting the Nonplace Urban Realm: Have We Come Full Circle?,”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1(1): 7-15.

Harvey, David

2005[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구동회 · 박영민 옮김,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파주: 한울아카데미.

Heidegger, Martin

1958 “An ontological consideration of place,” in M. Heidegger, *The Question of Being*, New York: Twayne Publishers.

Hirsch, Eric

1995 “Landscape: Between Place and Space,” in E. Hirsch & M. O’Hanlon, eds., *The Anthropology of Landscape: Perspectives on Place and Space*, Oxford: Clarendon Press, pp. 1-30.

Latour, Bruno

2007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홍철기 옮김,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서울: 갈무리.

Lawrence, Denise L. & Setha M. Low

1990 “The Built Environment and Spatial Form,”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9: 463-505.

Lefebvre, Henri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 by D. Nicholson-Smith, Oxford: Blackwell.

Levi-Strauss, Claude

1987[1963] *Structural Anthropology*, 김진욱 옮김, 『構造人類學』, 서울: 종로서적.

Lloyd, Justine

- 2003 “Airport Technology, Travel, and Consumption,” *Space & Culture* 6(2): 93-109.

Low, Setha M.

- 1996 “The Social Production and Social Construction of Public Space,” *American Ethnologist* 23(4): 861-879.
- 2000 *On the Plaza: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and Cultur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Low, Setha M. & Denise Lawrence-Zúñiga

- 2003 “Locating Culture,” in S. Low & D. Lawrence-Zúñiga, eds., *The Anthropology of Space and Place: Locating Culture*, Malden: Blackwell Pub., pp. 1-47.

Malinowski, Bronislaw

- 1935 *Coral gardens and their magic: a study of the methods of tilling the soil and of agricultural rites in the Trobriand Island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Merriman, Peter

- 2004 “Driving Places: Marc Augé, Non-places, and the Geographies of England’s M1 Motorway,” *Theory, Culture & Society* 21 (4/5): 145-167.

Meyrowitz, Joshua

- 1985 *No Sense of Place: The Impact of Electronic Media on Social Behavi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unn, Nancy D.

- 1996 “Excluded Spaces: The Figure in the Australian Aboriginal Landscape,” *Critical Inquiry* 22: 446-465.

Relph, Edward

- 2005[1976]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 · 김현주 · 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Sharma, Sarah

2009 “Baring Life and Lifestyle in the Non-Place,” *Cultural Studies* 23(1): 129-148.

Soja, Edward W.

1997[1989] *Postmodern Geographies: The Reassertion of Space in Critical Social Theory*, 이무용 · 구동회 · 이정옥 · 정병순 옮김,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서울: 시각과 언어.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Webber, Melvin M.

1964 “The Urban Place and the Nonplace Urban Realm,” in M. Webber et al., *Explorations into Urban Structur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 79-153.

Wilken, Rowan

2008 “Mobilizing Place: Mobile Media, Peripatetics, and the Renegotiation of Urban Places,” *Journal of Urban Technology* 15(3): 39-55.

<신문기사>

『오마이뉴스』, “행복한 마을에는 벽화가 있다”, 2009년 10월 20일자.

〈Key concepts〉: non-place, placeness, space, place, Augé, commercial space, residential space

A Review of Studies on ‘Non-place’ of Marc Augé

Jung, Heon-mok*

The interest on ‘place’ and ‘space’ in recent social theories is connected with rapid socio-cultural changes after the mid-20th century: such as urbanization, the spread of global capitalism, and the prevalence of electronic media. Especially, these changes brought about the dissolution of village communities,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 the change of life style according to electronic media, and at last it was regarded that they caused ‘the loss of meaningful places’. Many scholars who gave attention to these changes put forward new theories that emphasized the change or loss of ‘the traditional places’.

In this paper, I review the theory on spots which are not regarded as the ‘traditional’ places. For this purpose, I focus on an anthropologist Marc Augé’s discussion about ‘non-place’, and explore its meaning and preceding researches that apply his theory. According to Augé, a non-place is a space which cannot be defined as relational or historical or concerned with identity, and interactions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non-places are mediated by texts or images in contrast with 'anthropological place.' Through examination about this discussions, I propose that the appearance of non-places cause qualitatively different, new spatial logics, and plural spatial logics compete in these places. In particular, I pay attention to the relativity of non-places and explore its applicability in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